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기 간: 2025. 09. 14. ~ 2024. 09. 21.

출장지: 미국 오스틴, 시애틀

출장자: 이승욱 센터장, 박소영 연구위원,  
정민기 부연구위원, 김주휘 연구원

##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미국 오스틴, 시애틀
2. 출장기간: 2025. 09. 14.(일) ~ 09. 21.(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국토연구원	센터장	이승욱
	연구위원	박소영
	부연구위원	정민기
	연구원	김주휘

### 4. 출장의 필요성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전략 수립을 위해 해외 선진 도시의 디지털 첨단산업 조성 사례를 조사하고 디지털 첨단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스타트업 육성정책·공공-민간 협력모델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문서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운영 방식과 실질적 효과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정책 기획의 적합성과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음
- 미국의 오스틴(Austin)과 시애틀(Seattle)은 각각 혁신도시 성장 전략과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 되고 있음
- 오스틴은 과거 행정과 문화 중심 도시에서 출발하였으나 최근 텍사스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인재·기술 혁신 역량과 반도체·디지털 산업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정책을 통해 첨단산업 혁신도시로 급성장한 대표적 사례이며, 이는 부산이 추진하는 디지털·첨단산업 중심의 신성장 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시애틀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 본사들이 집적된 도시로 오래전부터 공공-민간-산학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 왔음. 특히 글로벌 허브로서 외국 자본과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제적 기업 활동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부산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글로벌 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동반성장 모델, 그리고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

## II. 출장일정

일정 (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9/14(일)	인천	달라스	(09:30) 인천 출발 (08:10) 달라스 도착 (12시간 40분 비행)	
	달라스	오스틴	(달라스 도착 후 오스틴까지 렌트차량으로 이동 3시간) (09:00) 달라스 출발 (11:00) 오스틴 도착	
9/15(월)			(11:00-12:30) 텍사스대학교 오스틴(UT Austin) 방문 인터뷰 -Dr. John Ekerdt 공과대학 부학장 및 4인 면담	Dr. John Ekerdt Dr. Ming Zhang Dr. Robert Paterson Dr. Beth Hood
			(14:00-17:00)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현장 답사	
9/16(화)			(11:00-12:30) Austin Technology Incubator 관계자 면담 - Richard Amato 외 1인 참석	Richard Amato Gary Anderson
			(14:00-17:00) 오스틴 실리콘 힐스 현장 답사	
9/17(수)	오스틴	시애틀	(13:36) 오스틴 출발 (14:02) 시애틀 도착 (4시간25분 비행)	
9/18(목)			(11:30-13:00) 시애틀 경제개발공사(Greater Seattle Partners) 방문 인터뷰 - Josh Davis, Chief Economic Development Officer 외 2인 참석	Josh Davis Shouyi Poon
			(14:00-17:00) 벨뷰 현장 답사 및 Microsoft 본사 Visitor Center 방문	
9/19(금)			(11:00-12:30) KSC 시애틀 관계자 인터뷰 - 정해준 소장 외 3인 참석	정해준 소장 Chami J Ro Brian Frost
			(14:00-15:30) Boeing Everett Factory 항공기 제작 공정 및 시설 참관	
9/20(토)			(12:50) 시애틀 출발	
9/21(일)	시애틀	인천	(16:40) 인천 도착 (11시간 50분 비행)	

### III. 수행사항

#### 1. 텍사스 오스틴

##### 가. 텍사스대학교 오스틴(UT Austin) 방문 인터뷰

- 일시 및 장소: 2025. 09. 15.(월) 11:00-12:30, University of Texas Austin - ECJ building
- 참석자: Dr. John Ekerdt, Dr. Ming Zhang, Dr. Robert Paterson, Dr. Beth Hood (UT Austin) 이승욱 센터장, 박소영 연구위원, 정민기 부연구위원, 김주휘 연구원 (국토연구원)

##### 주요 논의 내용

###### (1) 산학협력 모델

- UT 오스틴은 산학협력을 단기적 학생 프로젝트부터 장기적 대규모 연구까지 폭넓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이 문제를 제시하면 대학은 이를 연구과제로 발전시켜 해결방안을 모색함
- 산학협력에는 짧게는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과제형 프로젝트가 있으며 기업이 이를 제시하고 멘토 역할을 수행함. 학생 입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 참여가 이력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향후 채용까지 연결될 수 있음
- 대학은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맡아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기업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산학협력을 적극 선호하는 중
- 대학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혁신적 문제 탐색, 새로운 개념 제시에 강점이 있으며, 기업이 해야 할 전문 서비스 (예: 컨설팅·설계 용역)를 대학이 대체해선 안 되지만 기업이 직접 수행하기 부담스럽거나 논쟁적인 연구는 대학이 맡을 수 있음
- 특히 오스틴 근처에 있는 삼성, 아마존, 사우디 아람코와 같은 기술혁신을 가진 기업이 UT Austin Engeneering과 밀접한 산학 연계를 조성 중

## (2) 교육과정과 학생 참여

- 교육과정은 지역 산업과 지방정부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며 특히 대학원 과정에 있는 도시계획 관련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도시·교통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오스틴시와 맺은 MOU는 매년 30만 달러 규모의 공동 연구·교육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산 항목으로 고정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장 경험을 쌓고, 도시는 전문적 자문을 제공받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졸업생 진로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영리·학계가 각각 약 1/3씩을 차지하며, 학부생은 대부분 텍사스 출신으로 지역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한 반면, 대학원생은 국제적 배경이 다양함. 따라서 일부는 오스틴 및 텍사스에 정착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해외로 진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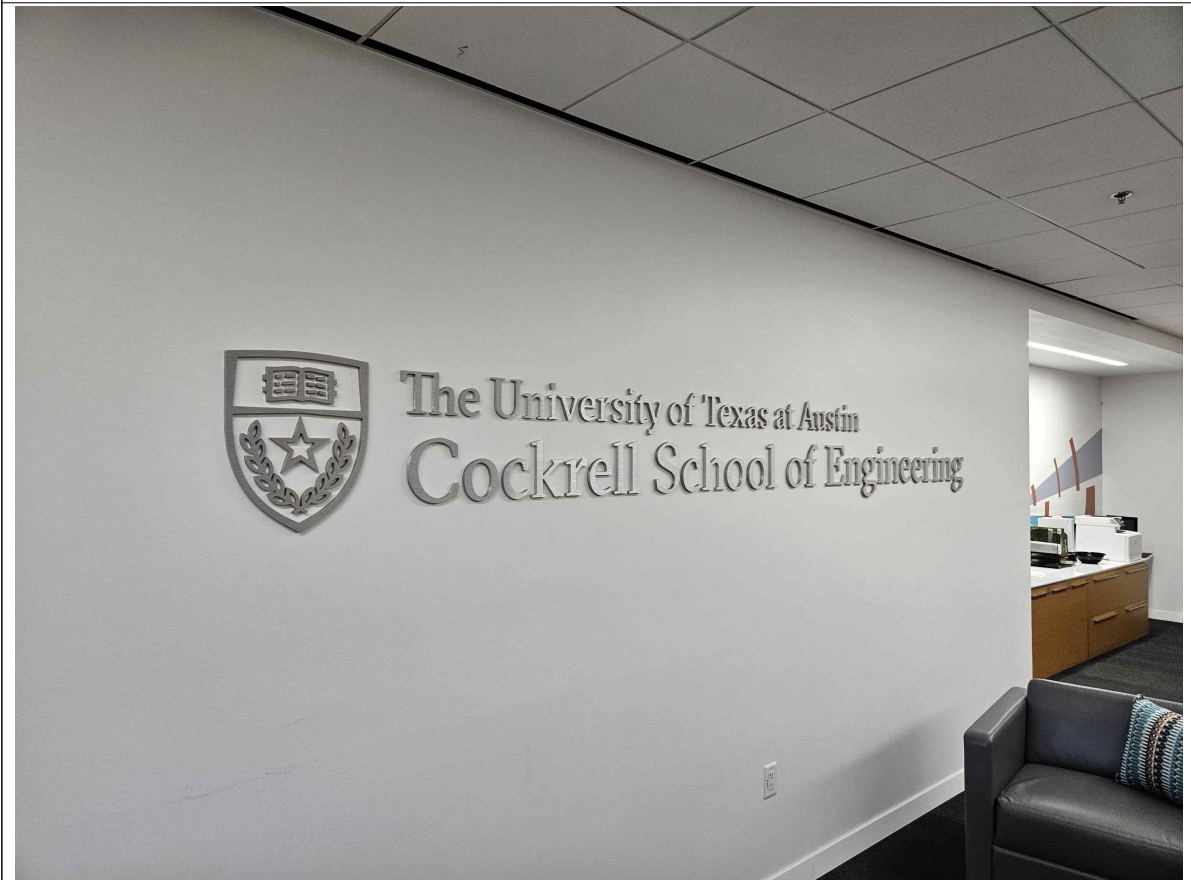
## (3) 도시경쟁력 및 인재 유치 요인

- 오스틴이 인재와 기업을 끌어들이는 힘은 단순한 산업적 인프라를 넘어 도시가 제공하는 높은 삶의 질과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교수진들은 강조 함
- “Keep Austin Weird”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오스틴의 문화는 젊은 세대의 매력을 끌어올렸으며 이와 동시에 풍부한 녹지공간과 비교적 낮은 범죄율, 다양한 음악·예술 활동, 우수한 교육 환경은 정주 의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였음
- 오스틴은 ‘실리콘힐즈(Silicon Hills)’라 불릴 정도로 IT·반도체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었음. 삼성,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대기업이 본사 또는 대규모 연구·생산 시설을 두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기술 집적도와 고용 기회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음. 교수진은 “캘리포니아까지 가지 않아도 오스틴에서 구글·메타 같은 회사에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인재 정착의 핵심 동기로 작용한다고 설명
-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는 주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이는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와 비교했을 때 큰 장점으로 꼽히며 오스틴을 대체 입지로 선택하는 기업과 인재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작용 했음을 강조

#### (4) South by Southwest를 통한 스타트업·문화 생태계 형성

- South by Southwest (SXSW)는 1987년 오스틴 시내에서 열린 지역 음악 축제로 시작했으며 당시에는 오 단순히 지역 밴드들이 모여 공연하는 정도의 규모에 불과했음
- 시간이 지나면서 음악 축제의 크기가 커지자 SXSW는 단순한 음악 축제에서 영화,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테크놀로지까지 아우르는 종합 행사로 발전하였음.
- 스타트업들은 SXSW를 통해 신제품과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글로벌 대기업은 미래 기술을 소개하며, 벤처캐피털은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장이 되었음
- 현재는 기업과 대학 연구진,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투자자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며 오스틴을 국제적 혁신도시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 이는 오스틴이 “스타트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음을 교수진들은 강조
- 오스틴은 일상 속에 공연·예술이 뿌리내린 도시로 이러한 문화적 자산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창업·혁신과 연결되는 배경을 형성하였으며 교수진은 “도시 곳곳에서 언제든지 음악과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창의적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토양을 제공한다”고 설명

□ 회의 사진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교수진과의 인터뷰

## 나. 산안토니오

- 일시 및 장소: 2024. 09. 15.(월) 14:00-17:00, 텍사스 산안토니오 일대
- 참석자: 이승욱 센터장, 박소영 연구위원, 정민기 부연구위원, 김주희 연구원 (국토연구원)
  
- 주요 내용

### 1) 경제적 측면

- 리버워크 강변에는 수백 개의 레스토랑, 바, 카페, 리테일숍이 밀집해 있으며 이는 연중 관광객 유입을 통해 도시 서비스업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함, 또한 인접 지역에는 극장·공연장·갤러리 등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관광 소비를 문화와 결합시킴
- 리버워크 주변에는 중저가 숙박시설부터 고급 호텔까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소비 체류 시간을 연장시키는 역할을 함. 대표적으로 메리어트, 하얏트, 힐튼과 같은 글로벌 체인 호텔이 강변을 따라 자리잡아 리버워크를 국제 관광 허브로 강화함
- 리버워크 뒤편으로는 오피스 빌딩, 컨벤션센터, 시청사 및 정부기관 건물이 위치하여, 관광·상업지역이 행정 및 업무 기능과 긴밀히 연계됨. 이러한 도시 공간 구조는 관광·서비스업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 중심지로서의 행정·비즈니스 역할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어냄

### 2) 다양성·포용성

- 산안토니오는 히스패닉 다수가 거주하는 다문화 도시로, 다양한 인종·문화가 공존하는 구조를 통해 포용성과 개방성을 도시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있음
- 음식, 예술, 축제 등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는 히스패닉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결합된 독창적 이미지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도시의 차별화된 매력 요인으로 작동함
- 포용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 운영은 글로벌 인재가 거주·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이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쟁 요소임

### 3) 공간적 구조

- 산안토니오는 리버워크와 산 페드로 크리크를 중심으로 한 수변 공간 개발을 통해 도심 활성화와 관광·문화 자산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성공함

#### (상업·관광·문화 복합화)

- 리버워크는 단순한 치수시설을 넘어 상업·관광·문화가 강으로부터 다양한 용도의 공간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도심 보행축과 수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상징적 모델로 자리잡음
- 강과 보행자 도로가 만나는 최전면 공간을 음식·음주·소비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 보행자와 이용객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회적 교류의 장을 형성함. 또한 레스토랑의 야외 테이블은 “먹는 사람-걷는 사람”이 시각·공간적으로 겹치게 하여 도시의 개방성과 활력을 높이는 역할 함
- 레스토랑 뒤편에는 중저가 숙박시설부터 고급 호텔까지 다양한 옵션을 배치하여 관광객이 즉시 머무르고 소비할 수 있는 체류 기반을 제공
- 숙박시설 뒤편에 있는 오피스 건물·정부기관 건물을 배치하여 단순 관광·상업공간이 아니라 일상적 도시 활동(근무, 행정, 지역 거주자 생활)과 연계되는 다층적 기능을 부여함. 이는 리버워크가 단순한 관광단지가 아니라 상업·관광·행정이 공존하는 복합도심 모델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데 기여

#### (운하거리의 다양한 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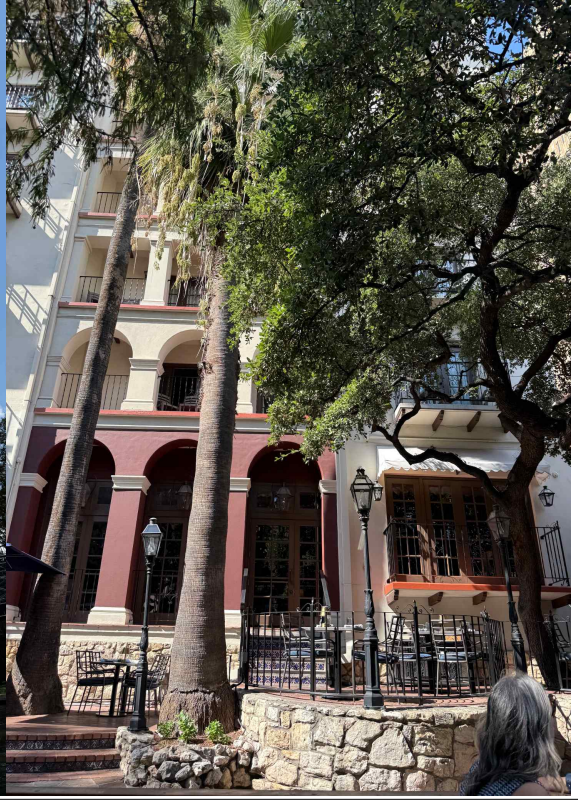
- 산안토니오 운하거리는 크게 3개의 레이어(강·칸막이·보행자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칸막이 부분은 울타리·수풀·나무·포켓가든 등 자연적·인공적 요소가 혼합적으로 배치되어 있음
- 높은 구조물 형태의 칸막이는 강과 보행자 도로 사이에 뚜렷한 경계를 형성하여 안전성과 시각적 구분감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공간적 분리감을 심화시키는 단점이 존재함
- 반대로 자연구조물(수풀·나무·작은 포켓가든 등)은 경계성을 제공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부드럽게 융화되어 보행자에게 심리적 개방감을 주며 강과 도시 공간이 어우러지는 특유의 경관적 매력을 형성함
- 일부 구간에서는 아예 칸막이가 없는 형태가 사용되어 강과 보행자 도로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며 방문객이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이러한 다양한 경계 처리 방식의 랜덤 배치는 공간마다 서로 다른 개방감과 친밀감을 연출하여 보행자가 걷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간적 체험을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도심 내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
- 이러한 복합적인 공간 구조는 관광·서비스업·산업 기능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모델로서 부산이 추진하는 수변 기반 재개발 사업, 특히 동천과 같은 구역에 적용될 경우 도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있어 주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함

□ 사진



리버워크 거리



리버워크 거리

## 다. Austin Technology Incubator (ATI) 관계자 면담 및 인터뷰

- 일시 및 장소: 2025. 09. 16.(화) 11:00-12:30, Austin Technology Incubator Office
- 참석자: 이승욱 센터장, 박소영 연구위원, 정민기 부연구위원, 김주희 연구원 (국토연구원), Richard Amato, Gary Anderson (ATI)

### □ 주요 논의 내용

#### (1) ATI의 설립 배경과 성격

- ATI는 1989년 UT 오스틴 산하에서 설립된 창업 인큐베이터이며, 출발 당시에는 대학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자원으로서 기능하며 다양한 창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딥테크 분야에 특화되어 하드웨어, 반도체, 의료기기, 지속가능성 관련 스타트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변화하였음
- 현재 ATI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첫째는 에너지·물·교통·식품·순환경제 등 지속가능성을 아우르는 영역, 둘째는 특히 의료기기에 집중된 헬스케어 분야, 셋째는 반도체와 첨단 제조를 포함하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분야로, 이 세 축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창업을 육성하고 있음
- ATI는 미국 최장수 인큐베이터이며 2000년에는 글로벌 커머셜라이제이션 그룹(GCG) 설립하여 해외 지역 혁신 확산 지원중이며 일본 아이치현, 폴란드, 인도, 싱가포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인큐베이팅 모델 확산 중

#### ATI의 글로벌 성과

- 일본 아이치현 Station AI 사례 : 아이치현은 ATI와 함께 2022년에 'Station AI'라는 인큐베이터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조성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협력 네트워크를 사전에 구축한 뒤 시설을 개설

- **ATX Plus 프로그램** 오스틴시는 ATI와 함께 해외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South by Southwest (SXSW) 행사 기간 중 스타트업을 초청하여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ATX Plus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싱가포르 로봇기업, 인도네시아 식품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이를 통해 미국 유통망과 연결되는 성과를 거둠

## (2) 산·학·관·커뮤니티의 협력 구조

- 오스틴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흔히 말하는 ‘산업-학계-정부’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나 이후에는 여기에 지역 사회와 커뮤니티가 네 번째 축으로 결합되어 생태계가 확장 하고 있음
- 학계는 인재와 연구 아이디어를 공급하고 산업은 자본과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정부는 규제와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삼중 나선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커뮤니티를 추가하여 실질적 실행력과 활력을 보완
- ATI는 UT Austin 산하에 있지만 대학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고, 주로 연방·주 단위 보조금(grant)과 민간 스폰서십을 통해 재원을 확보. 또한 일반 인큐베이터들은 기업에게 사무공간 사용료, 프로그램 수수료를 받지만, ATI는 입주기업에 현금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소액 지분을 기부받는 방식을 채택하여 스타트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로 운영 중
- ATI는 스타트업에게 노하우 전수와 네트워크 연결에 집중하는 기관으로서 약 100명 규모의 멘토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기업에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해주는 큐레이션된 1:1 지원 방식을 운영 중

## (3) 부산 글로벌허브도시의 방향성 - ‘Best Busan, not Next Seoul’

- ATI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할 때 단순히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를 모방하기보다 항만, 해양금융, 물류, 관광 등 부산만이 가진 고유한 자산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
- 서울은 이미 종합 금융·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 잡았지만 해양항만·물류와 같은 산업적 강점은 부산만의 독자적 영역임. 만약 부산이 단순히 “제2의 서울”을 목표로 한다면 기존 자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음을 3자의 입장에서 강조

#### (4) 정부의 초기 역할과 민간 자본 유입

-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인프라 구축, 보조금, 세제 혜택과 같은 기초적 지원을 제공하여 창업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벤처캐피털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 동시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이 주도하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Sustainable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꾸릴 수 있음을 강조
- 대기업은 스타트업과 협력함으로써 내부 혁신 과제를 외부 생태계와 연결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 진입과 성장 기회를 얻으며 이는 지역 차원에서 대기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 강조
-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인재와 기업이 단순히 성장 이후 수도권이나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서 주거, 문화,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연결망을 제공하여 지역에 머무를 유인이 강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 (5)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적 플랜의 필요성

- ATI 측은 “좋은 와인이나 김치가 숙성에 시간이 걸리듯 스타트업 생태계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부산이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
-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 자본·대기업·인재 파이프라인으로 확장되는 단계적 구조를 구축하여 허브도시로서의 지속성을 확보해야함

□ 회의 사진



▲Austin Technology Incubator관계자와의 인터뷰

## 라. 오스틴 실리콘 힐스 답사

- 일시 및 장소: 2025. 09. 16.(화) 14:00-17:00, 오스틴 시내 일대
- 참석자: 이승욱 센터장, 박소영 연구위원, 정민기 부연구위원, 김주희 연구원 (국토연구원)
- 주요 내용

### 실리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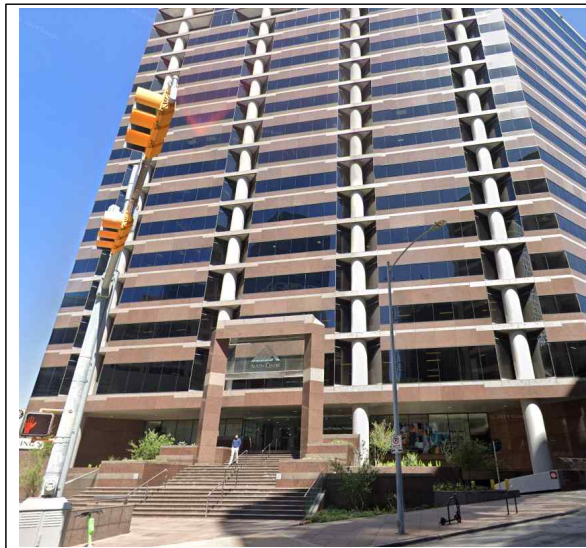
- 오스틴은 '실리콘힐스(Silicon Hills)'로 불릴 만큼 테크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휴렛 팩커드, 메타 등의 최상위 대기업들이 오스틴에 핵심 거점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R&D 캠퍼스가 집중되어 있으며, 동시에 오스틴테크인큐베이터(ATI) 등 공공·대학 기반의 창업지원 플랫폼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 하는 중
- 텍사스대 오스틴(UT Austin)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기반의 기술 창업 지원 체계가 정착되어 있으며 나아가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코워킹 공간이 연계되어 '대학-기업-창업' 순환형 혁신 구조가 형성된 도시임

### 공간구조적 특징

- 실리콘힐스는 도심에서 북부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첨단 산업벨트로 발전하였으며 각 구역은 명확한 기능적 특성을 가짐
- **Downtown Austin:** 스타트업 사무공간, 벤처캐피털, 공유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산업공간
- **The Domain:** 대기업(Apple, IBM 등) 캠퍼스와 고급 오피스·주거 복합지구
- **East Austin Corridor:** 예술·문화와 기술창업이 융합된 창의산업지대
- 해당 지역들은 도심 접근성, 고급 인력 유입, 생활 인프라를 고려하여 주거-업무-문화가 융합된 도시공간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스타트업 지원 건물 및 주요 거점

- **Capital Factory:** 오스틴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허브이자 공유 오피스로 사무공간, 액셀러레이터, 투자자 네트워크, 멘토링, 이벤트를 한곳에서 운영 중. 오스틴의 스타트업 중심지로 불리며 매년 수백 개 기업이 이곳을 거쳐 성장
- **Austin Technology Incubator:** 공공-대학 기반의 기술창업 인큐베이터로,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에너지, 헬스, AI 분야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형 창업 생태계 구축
- **WeWork:** 민간 중심의 공유오피스 네트워크로, 다양한 규모의 스타트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 창업자 간 네트워킹과 협업 촉진
- 정부의 인프라 지원, 대학의 기술 창업,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층적 지원체계가 지역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 상시 교류·협업을 촉진하는 공간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이끌어 내고 있음



Capital Factory



WeWork

## 마. 시애틀경제개발공사 (Greater Seattle Partners) 면담

- 일시 및 장소: 2025. 09. 18.(목) 11:30-13:00, GSP Office
- 참석자: 이승욱 센터장, 박소영 연구위원, 정민기 부연구위원, 김주희 연구원 (국토연구원), Josh Davis, Shouyi Poon (GSP)

### □ 주요 논의 내용

#### GSP 소개 및 시애틀 경제 개요

- GSP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자금의 약 60%는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보잉·알래스카항공 등 대기업으로부터, 나머지 40%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되고 있음
- 시애틀 광역권은 약 4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미국 9위권 대도시 경제권으로 포춘 500대 기업 12개의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기술 인력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또한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으로 이어지는 항공 및 IT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활발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음을 강조
- 한인 기업은 워싱턴주 전체에 약 35개 그중 시애틀 권역에 약 30개가 진출해 있으며 한인 커뮤니티는 약 4만 명 규모로 한·미 간 경제 및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
- 최근 5년간 시애틀 내 FDI 규모는 총 2.2억 달러로 약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반대로 시애틀에서 해외로의 투자는 약 8억 달러로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
- 시애틀은 아시아와 유럽을 모두 잇는 우수한 항공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

#### 주요 산업 및 입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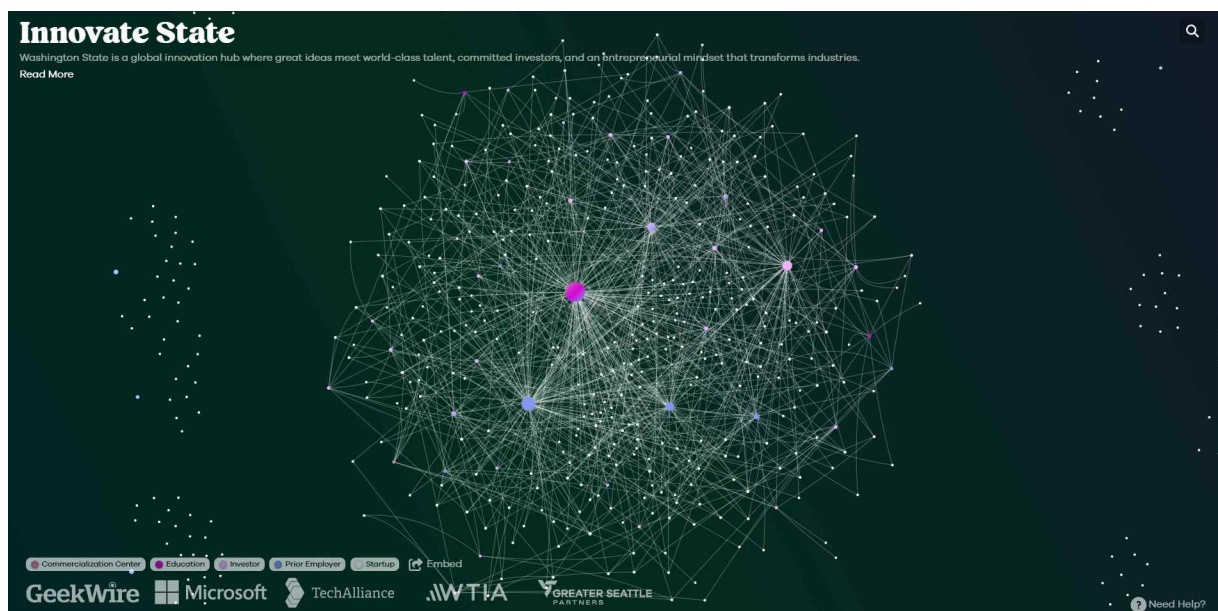
- GSP는 시애틀의 핵심 산업을 항공우주·우주산업, IT/AI, 생명공학·의료기술, 정밀제조, 해양산업으로 구분함. 특히 항공우주 분야는 100년 이상의 산업 전통을 갖고 있으며 보잉(Boeing)이 지역 산업의 기초를 형성함
- 우주 분야는 최근 급격히 성장 중이며 전 세계 저궤도 위성의 50% 이상이 워싱턴주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통계를 언급 입지계수 LQ(Location Quotient) 분석 결과 항공기 제조업의 산업집중도는 미국 평균의 약 18배에 달하며 IT·클라우드·AI 부문은 Microsoft, Amazon Web Services(AWS) 등을 중심으로 집적도가 매우 높음

- 생명과학 및 의료기술 분야는 워싱턴대학교 및 여러 바이오연구소를 중심으로 발전 중이며 항공·정밀제조 산업과의 교차 영역(의료용 정밀기계, 바이오엔지니어링 등)도 활발하다고 언급
- 정밀제조 부문은 항공의료기기 분야가 핵심이며 해양산업은 여전히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워싱턴 Maritime Blue가 지역 해양 혁신의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산·학·연 연계 및 대학 역할

-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UW) 는 GSP의 투자자이자 지역 혁신 생태계의 중심 허브(hub) 로 평가됨
- GSP는 UW와 협력해 지역 혁신망을 시각화한 “Innovation Ecosystem Map”을 제작하였으며 해당 지도는 지역 내 공공기관·대기업·스타트업 간 연계 구조를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주는 도식으로 UW는 149개의 연계 기업과 19개의 핵심 허브 역할, 벤처캐피털 Madrona VC는 64개의 스타트업 과 직접 연계되어 있음



<Innovation Ecosystem Map

<https://greater-seattle.com/innovate-state/>>

- UW의 연구문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실용적 응용 연구 중심으로 예시로 COVID-19 백신 연구 및 산업계 협력 연구가 강조됨. UW의 연구 협력인 민간 기업을 넘어 정부기관과의 협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산학연계를 보여줌
- 예를 들어, UW는 Defense & Maritime Launch Pad Program을 운영 중이며 이는 국방 및 해양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임. UW는 다른 대학에 비해 정부 및 군(Defense) 기관과의 협력에 훨씬 개방적인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연구 성과를 군과 공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함
- CoMotion은 워싱턴대학교가 직접 자금을 출연하고 운영하는 인큐베이터이자 엑셀러레이터로 참여 기업은 보유한 기술을 제시하면 CoMotion이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 교수진 및 연구진과 연결시켜 공동 연구 및 사업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참가비는 선납 방식이 아닌 성과 발생 시점에 일정 비율의 수익을 대학에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단독으로는 구축하기 어려운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음

### 정책·규제 및 인센티브

- GSP는 워싱턴주는 기업유치용 세제 감면이 거의 없다는 점을 명시함. 유일한 예외는 산업용 프로젝트에 한정된 재산세(Property Tax) 감면이며 적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지방정부 단위로만 운영됨
- 텍사스가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규제완화로 기업을 유치하는 반면 시애틀은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와 고급 인력·삶의 질”을 주요 유인 요소로 삼음
- 시애틀은 돈으로 기업을 유치하지 않는 대신 민간 혁신 환경이 핵심 경쟁력이며 오스틴(Austin)은 세금 감면·규제완화 중심의 ‘저비용 유치 모델’로 대표되지만, 시애틀은 상대적으로 고임금·높은 생활비를 수반함에도 풍부한 인재, 문화적 다양성, 안전한 주거환경, 자연경관 등을 이유로 기업과 인재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고 설명
- 예컨대, 시애틀은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평가되며 풍부한 자연환경, 예술·문화·스포츠 인프라를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제시함. 2026 FIFA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더욱 높은 글로벌 인지도 상승이 기대된다고 언급
- 지역 인구의 약 20%(5명 중 1명) 이 미국 외 출생자로, 다문화·다언어 환경이 형성되어 있으며 한인 약 4만 명, 인도계 고급 인력, 멕시코계 노동자층 등 구성이 다양하며 GSP는 “기업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근무지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함

## 시애틀의 도시공간 제약

- 시애틀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토지 이용의 제약이 매우 큰 도시로 평가됨. 특히 40~50에이커 이상의 대규모 산업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나 제조시설은 주로 동부 워싱턴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리적 제약이 역설적으로 도시 구조의 압축화(Compact City)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도시 전역이 고밀도로 계획되어 있어 산업시설·대학·연구소·생활 편의시설 간 접근성이 매우 높으며 어느 지점에서든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이러한 압축형 도시 구조는 산업 간 상호작용과 네트워킹, 집적경제(economy of agglomeration)를 강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 □ 회의 사진



Greater Seattles Partners 관계자와의 인터뷰

## 바. 벨뷰 및 레드몬드 시내 답사

- 일시 및 장소: 2025. 09. 18.(목) 14:00-17:00, 벨뷰 일대
- 참석자: 이승욱 센터장, 박소영 연구위원, 정민기 부연구위원, 김주희 연구원 (국토연구원),
- 주요 내용

### 도시 개요

- 벨뷰는 시애틀 동쪽 워싱턴호 (Lake Washington) 건너편에 위치한 중규모 도시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IT 대기업의 핵심 연구개발 거점이 집중된 미국 서북부 대표 디지털 산업 중심도시임
- Eastside Tech Triangle (벨뷰-시애틀-레드몬드)는 디지털 첨단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도시에는 고층 오피스, 복합상업시설, 친환경 캠퍼스, 경전철 노선이 조화를 이루며 첨단산업과 생활환경이 통합된 도시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도시의 공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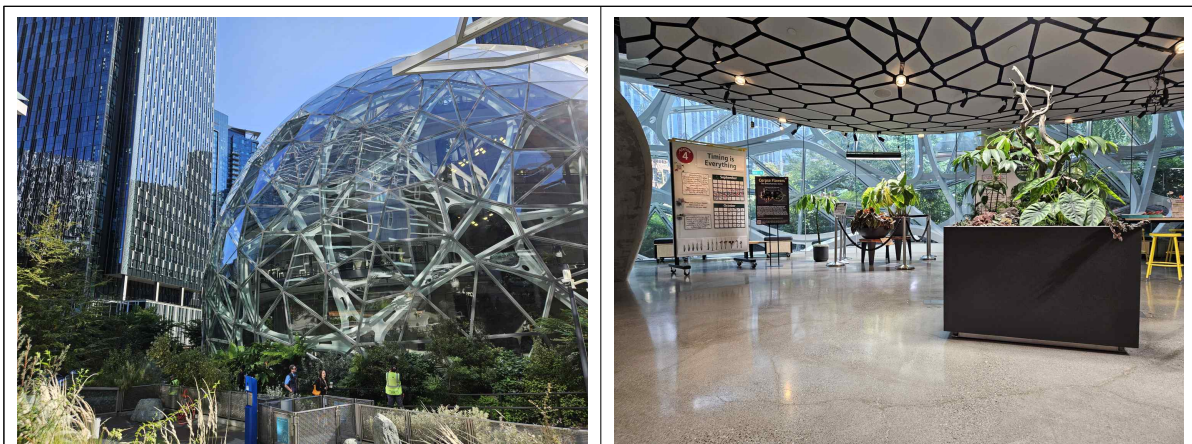
- **Microsoft 본사 캠퍼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레드몬드 지역 전역에 걸쳐 다양한 개별 동으로 구성된 거대한 R&D 도시형 캠퍼스로, 자율주행 셔틀, 녹지보행로, 스마트에너지 설비가 구성되어 있었음
- 공간의 개방성과 유연성이 돋보였으며 관광객을 위한 Visitor Center, 회의동 및 오픈라운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단순 사무단지가 아닌 지역 사회, 관광 그리고 기업이 유기적으로 개방형으로 연결된 '커뮤니티형 연구시설'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
- **Amazon Spheres:** 아마존의 상징적 본사 건물인 Amazon Spheres는 외형은 유리 돔 3개가 연결된 형태로, 내부에는 4만여 종의 식물이 조성된 바이오필릭(Biophilic) 오피스 환경을 구현하고 있었음
- 내부는 전통적인 책상 구조 대신 개방형 좌석, 협업 포드, 산책형 회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술기업의 업무환경 혁신과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보여주는 공간 구조 었음
- Spheres 주변에는 Amazon HQ1, Amazon Go 매장, AWS 데이터랩, 그리고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연계된 오피스 블록이 밀집해 있었으며 이는 벨뷰·레드먼드와 함께 다핵형 기업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음

- 벨뷰 도심(Downtown Bellevue)은 Amazon Bellevue 600, Meta, T-Mobile 본사, SAP Concur 등이 입지한 고밀도 업무·상업 복합지구로, 도시 내 첨단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었음
- 특히 Amazon은 본사 일부 기능을 시애틀에서 벨뷰로 이전 중이며 두 도시가 사실상 하나의 연속된 기업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었음



Microsoft 본사 캠퍼스 내부 및 Visitor Center 내부



Amazon Sphere 전경 및 내부 모습

## 산업적 특징

- 벨뷰의 스타트업 기반은 오스틴처럼 대학·공공 중심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회사를 나와 자신이 다루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 회사를 세우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Microsoft와 Amazon 등에서 축적된 기술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AI, 핀테크,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데이터분석 분야의 스타트업이 벨뷰와 레드먼드에 분포하며 '대기업-스타트업 연계형 산업 사슬'을 형성하고 있음
- 이들 기업은 대기업의 프로젝트나 기술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며, Microsoft의 창업지원 플랫폼이나 Amazon의 AWS Activate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상호의존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
- 이런 구조 덕분에 벨뷰의 산업 생태계는 기업 간 경쟁보다는 협력 중심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확산되는 활발한 혁신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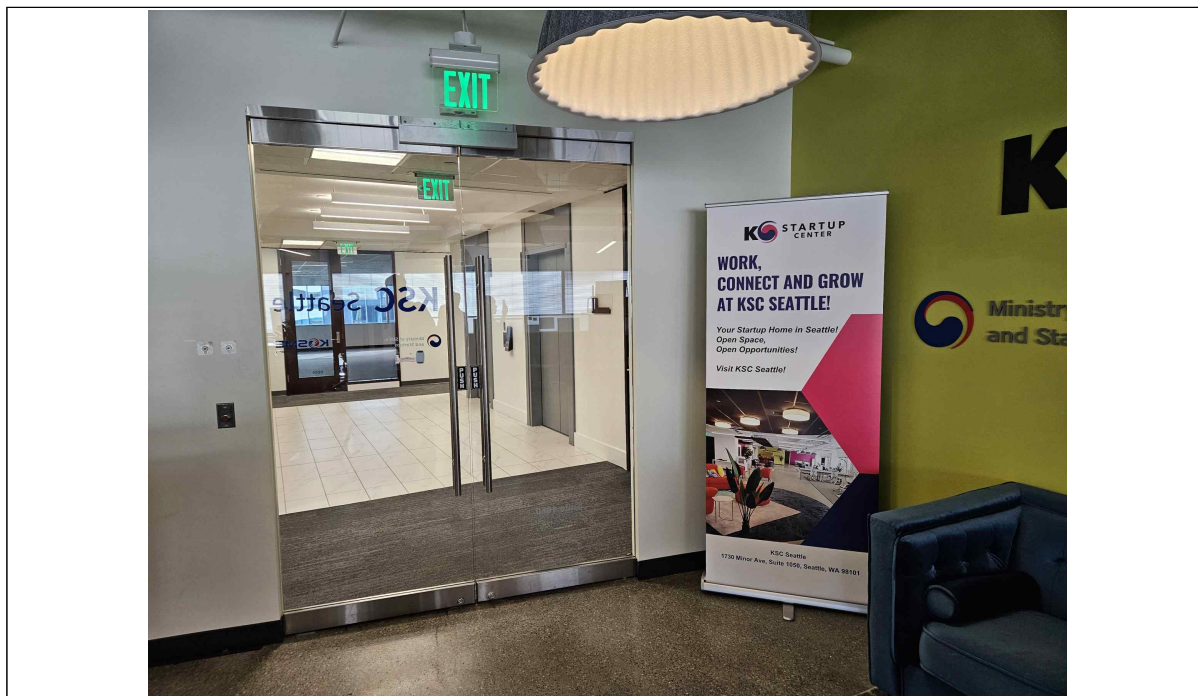
## 사. KSC (K-Startup Center) Seattle 방문 및 인터뷰

- 일시 및 장소: 2025. 09. 19.(금) 11:00-12:30, KSC-Seattle Office
- 참석자: 이승욱 센터장, 박소영 연구위원, 정민기 부연구위원, 김주희 연구원 (국토연구원), 정해준 소장, Charmi Ro, Brian Frost (K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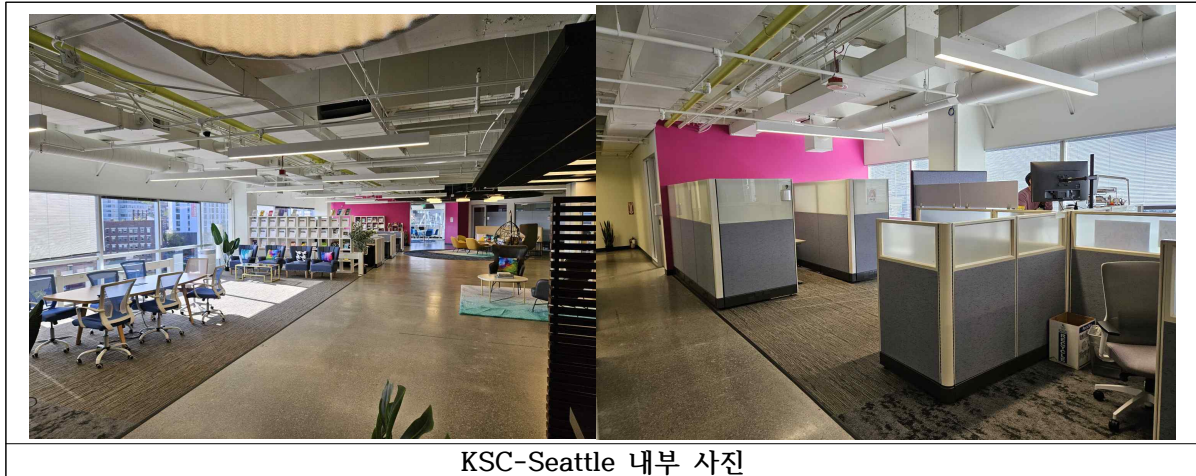
### □ 주요 논의 내용

#### (1) KSC 소개

- KSC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한국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지 공유오피스 및 코워킹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월 70 달러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시애틀 진출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있음
- 또한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법률·세무 자문, 마케팅 지원, 사업 연계, 투자자 매칭, 현지 기업 네트워킹 등 종합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KSC-Seattle 입구



KSC-Seattle 내부 사진

## (2) 시애틀의 경제개발 사례 공유

- 시애틀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스타벅스, 코스트코, 익스피디아 등 글로벌 기업 본사가 집적해 있으며 이들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동시에 인재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 특히 워싱턴대학교와 같은 명문 대학이 인재 공급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과 학계가 긴밀하게 결합함으로써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 점이 부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줌

## (3) 레번워스(Leavenworth) 사례

- 워싱턴주에 위치한 레번워스라는 도시는 원래 목재 산업에 의존하던 도시였으나 산업 쇠퇴와 기업 이탈로 심각한 위기를 맞음
- 도시 주민들은 지리적 특성을 검토한 끝에 독일 바이에른 풍의 테마 마을을 조성하는 전략적 전환을 선택했고 허구적 역사에 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를 독일식 건축 양식과 문화 행사로 꾸밈으로써 관광지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함 (목재가 풍부했기 때문에 독일식 건축물을 세우고 이를 테마로 한 마을을 조성하기에 매우 적합했음)
- 현재 레번워스는 연간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는 워싱턴주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았으며 소규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기획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한 대표 사례로 평가됨
- 레번워스는 없는 문화적 배경을 창조하여 굳건한 관광산업을 만들어낸 만큼, 이미 한국전쟁 피난수도 경험, 조선·해양 산업 기반,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문화와 관광산업이 뚜렷한 부산은 보다 전략적인 기획을 통해 세계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
- 이러한 자산은 단순히 관광산업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복합 산업 발전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제주도의 오설록 차 산업이나 양조 산업처럼 특정 제조업과 관광이 결합

- 하여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모델을 부산에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북극항로 개통에 따른 지리적 위상 변화는 부산이 새로운 해양 물류·조선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요구됨

#### (4) 시애틀의 기업 유치 및 인재 풀 관련 논의

- 미국 내 지역별 특성을 비교할 때 텍사스 (오스틴) 는 규제가 적고 세금 부담이 낮으며 제조업 중심 구조로 인해 단기 생산직·기능직 인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시애틀은 세금과 환경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전략적·창의적 인재들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어 첨단산업 및 스타트업에 유리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시애틀은 오스틴이나 텍사스에 비해 세율 측면에서는 경쟁우위를 갖기 어렵지만, 쾌적한 도시 환경, 우수한 고등교육 인프라, 대기업 근무 경험을 보유한 고급 인재, 풍부한 전문 역량을 지닌 노동력 등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어 스타트업을 비롯한 새로운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에 유리한 도시로 평가됨
- 부산은 서울·수도권 외 지역 중 스타트업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나 인재 확보와 지원 정책, 특히 펀딩 강화가 동반되어야만 경쟁력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됨

#### (5) 세계 인센티브 및 기업 이전 사례

- 회의에서는 미국 도시들의 기업 유치 전략이 언급됨. 특정 도시들은 법인세, 재산세, 판매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존 기업을 이전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
- 예를 들어, 100년간 매트리스를 생산해 온 가족 기업이 세계 감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시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가 소개됨. 새로운 도시가 10년간 세금 감면 (재산세·판매세·법인세) 같은 조건을 내세우자 기업이 본거지를 옮긴 것
-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된 포인트는 부산도 모든 산업에 일괄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고 잠재력이 있는 산업군을 선별하여 그에 특화된 세계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것
- 특히 부산의 전략산업(물류·금융·첨단산업·해양 관련 산업 등)에 선택적으로 세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시사됨

## (6) 항만과 도시 발전 관계

- 시애틀의 Port of Seattle은 도시와 별개로 운영됨. 항만과 도시가 협력적 관계라기보다는 각자 수익 중심으로만 움직여 경제적 시너지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항만청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이 흐르는지”에 집중할 뿐 도시 경제 발전이나 산업 전략과 긴밀히 맞물려 있지 않음
- 타코마는 도시, 항만, 스타트업 지원기관(Maritime Blue), 경제개발청, 세계무역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하나의 통합적 시스템처럼 협력하고 있음. 이 협력 구조 덕분에 항만-도시-산업-무역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애틀 항만공사 보다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됨
- 부산은 대표적인 항만 중심 도시이므로, 항만을 단순한 물류 거점이 아닌 도시 산업 전략과 연계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함. 시애틀처럼 항만과 도시가 분리된 구조보다는, 타코마의 협력형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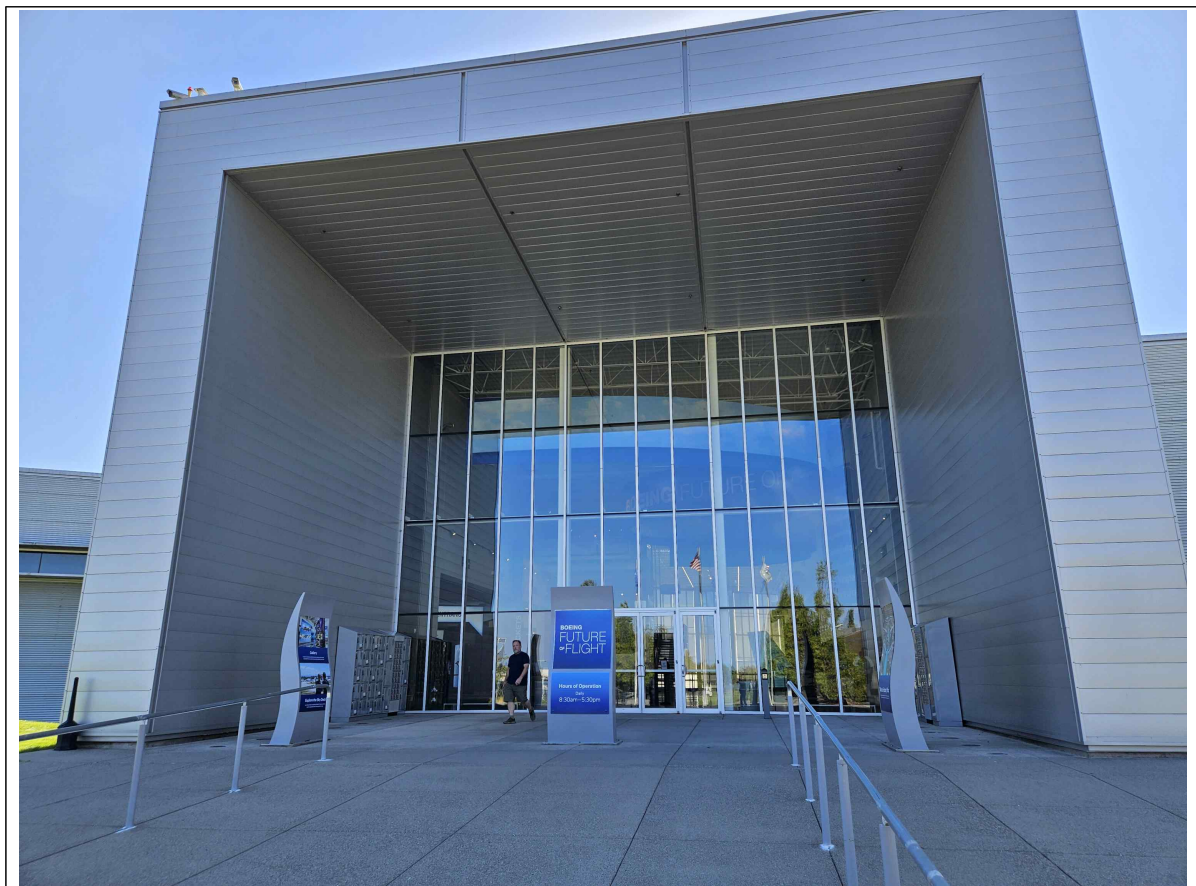
### □ 회의 사진



KSC 관계자 회의 사진

## 아. 보잉공장 방문

- 일시 및 장소: 2025. 09. 19.(금) 14:00-15:30, Boeing Everett Factory
- 참석자: 이승욱 센터장, 박소영 연구위원, 정민기 부연구위원, 김주희 연구원 (국토연구원)
- 주요 내용



Boeing Future of Flight 입구

### 공장의 구조

- Boeing은 생산시설 일부를 교육·전시·관광 기능으로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산업 홍보·인재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Everett Factory는 세계 최대 단층 건물로 면적이 디즈니랜드 전체를 수용할 만큼 거대함
- 내부에는 다양한 항공 기종별 전용 생산라인이 병렬 배치되어 있으며 각 구역은 모듈 단위로

구분되어 동시에 다수의 기체가 조립되는 구조였음

- 생산라인에서는 다수 항공사의 기체가 실제 조립 중이었으며 공장 상부에는 부품 운송용 크레인 레일 및 컨베이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날개·동체 등 대형 부품을 이동시키며 조립하는 수평적 모듈 조립방식(Modular Horizontal Assembly) 을 채택하고 있었음
- 생산공정 하부에는 길게 연결된 지하터널이 존재하며 인력·자재·장비 이동에 활용됨
- 공정별로 근로자 안전규정이 엄격히 관리되며, 휴대기기·카메라·가방 반입 금지 등 보안수준이 높음
- 투어 가이드 설명에 따르면, 공장 내 약 3만 명의 근로자가 3교대로 근무 중이며 전원 안전모와 보안조끼 착용 등 표준화된 근무환경이 유지되고 있었음
- 시설은 에너지 효율 (LEED Silver 인증)을 목표로 설계되어 채광·폐열회수·공조시스템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됨

#### 대형자산 산업의 공간집약적 생산체계

- Boeing Everett Factory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복합조립산업의 대표사례로 선박, 항공기, 에너지플랜트 등 대형 단일자산을 생산하는 산업이 어떻게 공간과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었음
- 공장은 단일 지붕 아래에서 부품 제작, 조립, 도장, 시험까지 일괄 수행하는 일체형 생산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부품 공급망은 Everett를 중심으로 반경 100km 이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Compact Supply Chain'을 구현하여 물류비·시간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 공정 내에서 실시간 정보 피드백이 가능한 공간적 클러스터 형태로 작동
- Everett Factory는 단순한 조립라인이 아니라 연구, 품질관리, 교육훈련, 물류 및 근로자 복지시설이 통합된 복합제조단지로 운영되고 있음
- 각 시설 간 동선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생산현장-연구-물류 간의 물리적 거리가 최소화되고 지식의 흐름과 생산의 흐름이 동시에 순환하는 구조를 갖추
- 연구개발·시제품제조·시험평가·물류시스템이 한 공간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적 모델로 직접적 시사점을 제공함



Boeing Future of Flight 내부 및 완성기 주기장 전경

\*공장 내부는 보안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음

## IV. 결론

### 오스틴 (Austin)

#### □ 저세율·규제완화 기반의 ‘기업유치형 혁신 모델’

- 텍사스주는 주 소득세가 없고 기업에 대한 세제 부담이 낮아,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대비 비용 경쟁력이 매우 높음
- 법인세·환경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며, 주정부가 세제 감면·보조금·인프라 구축 지원을 적극 제공함. 결과적으로 반도체·IT·AI 중심의 대기업 투자 이전과 스타트업 집종을 동시에 견인

#### □ 산학연 협력의 제도화

- 대학(UT Austin)이 지역 산업의 문제를 과제로 설정하고 학생과 교수가 공동 연구를 통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구조를 확립
- 기업은 문제와 자본을 제공하고, 대학은 아이디어·기술·인재를 공급하며, 이를 통해 교육-연구-산업이 하나의 순환체계로 작동

#### □ 스타트업 생태계 중심의 산업 전환

- 오스틴은 초기에는 인프라·보조금·세제혜택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 이후 민간 자본·벤처캐피털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
- 대학 산하 인큐베이팅 기관을 핵심 축으로 삼아 도시의 산업 구조를 스타트업 중심의 기술혁신 생태계로 재편
- 인큐베이터는 입주기업으로부터 수수료 대신 지분을 기부받는 방식을 채택하여 스타트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를 확보

#### □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 확보

- “Keep Austin Weird” 문화, 낮은 세율, 녹지·예술 중심의 정주 환경이 인재 유입과 기업 정착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단순 기술도시가 아닌 창의·문화 기반 혁신도시로 변화
- SXSW(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음악·영화·테크·벤처가 결합된 복합 산업축제로 진화.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와 기술 스타트업의 융합이 도시의 브랜드와 창업 분위기를 강화

## 시애틀 (Seattle)

### □ 민관 공동거버넌스에 기반한 산업생태계 운영

- GSP(Greater Seattle Partners)를 중심으로 민간(60%)·공공(40%)이 공동 출자, 산업유치·혁신·FDI를 통합 관리
- 보잉,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래스카항공 등 대기업이 지역 투자 주체로 참여해 지속 가능한 산업혁신 구조 형성

### □ 고도 인적자본 중심의 혁신 모델

- 워싱턴대학교(UW)가 연구-창업-기술이전의 거점 허브(CoMotion) 역할 수행
- 대학 연구를 산업화로 전환하는 성과연동형 사업화 시스템 구축 해양기술 등 공공R&D까지 연계
- 민간과 정부-대학 간 데이터 기반 협업(Innovation Ecosystem Map)을 통해 혁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고 정책 근거로 활용

### □ 대기업-스타트업 순환형 산업체계

- 벨뷰-레드먼드 지역에서는 Microsoft와 Amazon 본사를 중심으로 대기업 종사자들이 퇴사 후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스핀오프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기술공유 프로그램이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 통로로 작동하고 산업 간 협업·공유 중심의 가치사슬이 조성되어 빠른 기술 확산이 가능

### □ 세제 인센티브보다 ‘삶의 질·인재풀’ 중심의 경쟁력 확보

- 텍사스의 저세율 경쟁과 달리 시애틀은 높은 세율·비용에도 불구하고 고급 인력·문화다양성·안전한 주거환경을 강점으로 유지
- 기업은 세제혜택이 아닌 인재 접근성·혁신 네트워크·도시 브랜드·도시 인프라로 유입
- 지형적 제약을 역으로 활용해 Compact City 구조로 전환 산업·연구·생활·문화가 30분 생활권 내에서 맞물리는 지식집약형 도시구조 완성